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6월 2일(주일) 제1248호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마리아들의 '거룩한 목마름'

마리아행전, 6월 12~1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일반 7일, 저녁 10일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안내데스크 등록

2주 뒤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가정과 일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거룩한 목마름'을 주제로 진행되는 마리아행전의 참가열기가 벌써

부터 뜨겁다. 현재 2000명 넘게 신청했다. 6월 4일(화)까지 등록하면 회비 일반 2만 원, 저녁 1만 원을 할인해준다. 마리아행전 회비는 일반 4만 원, 저녁 2만 원이다.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주

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에서는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마리아행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요일별 주제 강의와 기도회가 이어진다.

12일 '심령이 가난한 자는(마 5:3)', 13일 '긍휼히 여기는 자는(마 5:7)', 14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마 5:6)'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가 강의한다. 오후 주제별 강의에서는 12일 김양옥 목사(등대교회), 13일 오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가 강의한다. 집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식하며 나라

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12일과 1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진행된다. 김윤희 대표(FWIA)가 강의한다.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순예배를 대체 할 수 있다<관련기사 6면>.

문의: 02-3215-3677, 3201

02-570-727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

6월 19일 '2019 아웃리치 발대식'

'2019 아웃리치 발대식'이 오는 6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아웃리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하고 뜻 깊은 아웃리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아웃리치 안전매뉴얼도 배포한다. 공동체 리더십, 국내외 아웃리치 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여름 약 1만 명의 성도들이 국내외 아웃리치를 간다. 안전하고 뜻 깊은 아웃리치가 되려면 기도와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아웃리치 팀장들은 아웃리치 계획서를 관리시스템(2000.swim.org)에 입력해야 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올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꼭 아웃리치 발대식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679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 6월 6일 시작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가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6월 6일(목) 시작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8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15일(토) 수원, 부천, 대전 온누리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주일학교 교사나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등록비를 입금한 다음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회비

는 내일(3일)까지 등록하면 1만5천 원, 당일등록은 2만 원이다.

해외 교사강습회도 열린다. 중국에 있는 비전교회에서는 이달 초, 베트남 온누리교회에서는 9월 중에 교사강습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521, 02-570-7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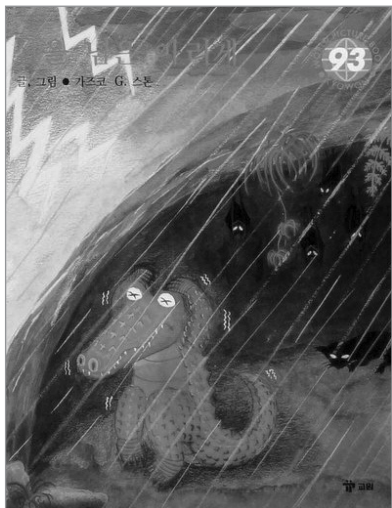
계좌: 하나은행 573-910003-60104 (온누리교회 어드벤처)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도전, 대가 그리고 누림



〈산을 넘은 아리게〉
가즈오 G. 스톤 저 | 교원 | 7,000원

이 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이다. 지금부터 약 8년 전쯤 첫째 아이에 읽어 주었고, 며칠 전에는 셋째 딸에게도 읽어주었다. 딸이 아직 어려 세 번째 장에서 덮었지만 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리게’라는 악어다. 보통 악어는 아니다. 모험에 도전하고, 그 도전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악어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

나단 리빙스턴’과 흡사하다.

아리게와 친구들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는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가볍게 출발한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산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리게의 친구들은 산이 생각보다 높고 험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선다. 그러나 아리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산의 정상에 올라선다. 그의 앞에는 긴 강과 광활한 바다가 펼쳐진다. 쟁쟁한 도시락을 그 풍경과 함께 먹는다. 이제 남은 여정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강을 타며 해엄을 치고, 넓은 바다까지 이른다. 이 책은 아리게가 친구들에게 그들이 사는 섬의 지도를 자랑스레 그려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동화에서 나는 진리의 한 면을 보았다. 모험의 시작은 마음의 소망이었다. 저 산 너머를 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마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흡사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렐 2:13)’ 하신다. 나는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대로 해보라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누군가를 실망시키

지는 않을까 망설이다가 놓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예방주사도 필요하다.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전한다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마치 아리게가 먼발치에서 바라본 산과 같다. 그 약속 성취의 여정에는 출발 때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들이 있다.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처럼 고통, 조롱, 기다림이 가득하다. 그것은 언제나 돌아서고 싶은 유혹이 된다.

아리게가 경험한 산 위의 아름다운 풍경은 도전한 자, 대가를 지불한 자들의 것이다.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다(약 1:22). 나는 나와 나의 자녀들이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합 3:19)’ 하나님의 초청에 가까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아리게가 돌아가 지도를 그려준 것처럼, 승리는 반복되고 기세(氣勢)는 계승(繼承)된다. 한 명의 돌파는 공동체와 사회의 돌파로 이어질 수 있다. 1945년 영국의 로저 배니스터 선수가 1마일 달리기에서 4분 벽을 깨자(3분 59초 주파, 도착 직후 의식을 잃었지만), 22년 동안 그 누구도 넘지 못했

던 기록이 한 달 만에 10명의 선수들에 의해 돌파되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거인족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기록이 이어진다. 유독 다윗 시대에 용사가 많았던 것은 다윗이 그려놓은 지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죽음과 무덤의 산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도를 그리셨다.

온누리교회를 알아갈수록 멀리서 보던 것보다 큰 산임을 발견한다. 교회를 세워 온 교역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어떤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왔는지 감탄하며 배우는 것이 많다. 청년 목회자로서 그 돌파를 이어가고 싶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청년세대가 멋지게 도전하고 돌파하기를 기대한다. 문득 이 글을 쓰면서 ‘위험한 교회’ 그리고 ‘코뮤니타스’ 메시지가 생각난다. 동화 속 악어 ‘아리게’처럼 우리 모두 산을 넘어서길 소망해본다.



조준목 목사
(길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교회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나요?

답: “기독교 내에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시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면서 교회가 왜 여러 교파로 분리되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시각이 다름을 이야기 해줘야 한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는 자녀들의 시각이 각기 다름을 예시로 들어줄 수 있다.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어느 자녀는 아버지를 119대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아버지가 잘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는 아버지를 선생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버지는 한 명인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다르게 이해한다. 아버지를 바라

보는 자녀들의 시각이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안에 교파가 많은 이유도 각 교파가 하나님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선 장로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정해 놓으셨다(예정론)고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감리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지, 정, 의’의 마음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애대우는 사람도 있다. 감리교는 집 나간 자식을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한다(자유주의론).

성결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한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보다 사회참여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

자 개인의 구별된 신앙생활(성화, 성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침례교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대일로 교제하기 원하시며 각자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침례교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는 세례(유아세례)를 주지 않는다. 침례교는 우리 각자의 신앙고백을 듣기 원하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강조한다.

오순절교는 축복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사)을 받아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기 원하는 부모처럼,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 중 어느 한 부분, 즉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교파가 생긴 것이다. 한편 교파의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나 어느 한 부분의 말씀, 예를 들어 장로, 감독, 성결, 침례, 은사 등을 강조해서 명명되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다면 서로를 향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뉘었지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날(부활절)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듯 교회도 마찬가지다.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거룩을 강조하거나 복을 강조하는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다. 성경은 진리이며, 성경에서 흐르는 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장경문 장로
(양천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의 사람들은 평탄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깊고 클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욱 진실했고 간절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벗김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조차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의 위기 한복판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고난을 헤쳐 나갔습니다. 역사의 위기는 언제나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도입니다. 찬양으로도 불립니다.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과 힘을 주는 기도이자, 시이자, 노래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썩어 쓰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 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17~19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살거나 비현실적인 사람의 독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쉽게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입니다. 하박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 기도가 진정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 나오는 까다롭게 보이는 하박국의 고민과 묵상 과정을 함께 거쳐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언자 하박국은 ‘왜 이 땅에 악인이 번성하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탓하며 항의했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13절).

하박국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침범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바벨론보다는 유다 민족이 낫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무리 죄악이 많다 해도 바벨론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마음에 있었던 질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죄악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시며 그 죄악대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박국이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죄 없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1~19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2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해 일하신다는 섭리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이 이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바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입니다.

하박국은 역사에 깊은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진노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도 그 가족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의 진노는 자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중에도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잔인한 자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잔인할 정도입니다. 죄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이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잔인해 보이는 것은 악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나타납니다. 왜 구약에 많은 전쟁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악과 거룩한 용사로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 진노하시며, 싸우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버리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죄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죄악을 품으면 엄청난 진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죄악을 품으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연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연도 굴복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산과 바다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해와 달이 멈춰섭니다. 결코 변하거나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과 홍해사건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과학, 공학, 지질학을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지질학과 지진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중요한 증거로 지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학자가 아닌데 왜 지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자연의 움직임과 반응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변화
염려자, 관찰자, 예배자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역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 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빙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처부수셨고 밭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9~13절).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까지 사용하심으로 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악을 떠나면 사는 것이고, 악을 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16절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벅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16절).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의 삶과 신앙시리즈

1. 크리스천의 품위 2. 땀의 가치 3. 노인의 품격

크리스천들이 보여야 할 품위가 무엇일까?

품위(品位),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 기품, 품격
참된 인격과 믿음, 행위에서 진정한 품위가 나온다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에게는 내가 부자들에게서 본 간악함이 없어서였다. 처절한 왕따로 전략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품위. 내가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 박복자(김선아 분)가 우아진(김희선 분)을 보고 읊은 대사다. 박복자가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게 바로 품위다. 품위(品位)란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이나 기품, 품격을 말한다. 크리스천에게도 품위가 필요하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품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인, 연예인, 재벌가 자제 등 사회 지도층의 품위 없는 모습이야 하루 이틀 아니라곤 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와 크리스천 중에도 품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품위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품위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퇴직금을 천 원짜리 지폐로 수천 장 주면서 눈앞에서 세어가라고 하는 사장, “점심시간 아니면 양치질하지 마라”고 한 대기업 임원의 행동에서는 분명 품위라곤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블레스는 프랑스 말로 ‘귀족’ 이고, 오블리주는 ‘의무’ 라는 뜻이다. 귀족의 명예만큼 의무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고대 로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사회지도층이 반드시 갖추고 실천해야 할 마땅한 품위로 여긴다.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이들이 많다.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자,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며 품위를 드러낸 사람들이다.

특히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가 귀감이 된다.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했다. 이회영 선생의 가문은 조선 대대로 고위 문무 관료를 수없이 배출한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당시 ‘이회영 선생 가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는 보장된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는 독립운동을 택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마련한 자금은 서전서숙, 신민회, 헤이그밀사, 의열단 등 항일운동 전반에 사용됐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폐교될 때까지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하기도 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는 훗날 혹독한 곤경에 처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이회영 선생 여섯 형제 중에서 네 명이 항일운동 중에 사망했다. 이회영 선생 역시 밀고자에 의해 붙잡혀 모진 고문 끝에 66세 나이로 순국했다.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가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독교에 입각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사자 굴의 다니엘>.

다니엘, 다비다, 백부장처럼

성경에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이가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비참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했고(단 1:8),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단 2:1~23).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음모를 꾸몄다. 왕 외의 사람이나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사자 굴에 던지는 법령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와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해내셨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크리스천의 품위를 지켰다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았다(행 9:36~42). 그녀가 얼마나 신실하고 덕망이 높았는지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제자’라는 단어는 오직 이곳에만 나올 정도로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그녀가 병으로 죽자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옴바의 모든 과부와 고아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보여주며 슬피 울었다. 이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시신을 향해 외쳤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옴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행 9:40~42).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숙옷과 겹옷을 지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다비다의 품위 있는 모습과 섬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 또한 진정 품위 있는 사람이었다(마 8:5~13). 그는 인격과 겸손함으로 품위를 드러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며 예수께 청했다.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한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마 8:8).

로마 제국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종속국의 초라한 목수 출신 랍비에게 이러한 겸손과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무척 놀랍다. 예수님조차 그런 백부장의 믿음에 찬탄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10).

크리스천의 품위는 어디에서 나올까?

값비싼 명품을 몸에 걸치고, 우아하고 조신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품위 있는 걸까? 결코 아니다. 품위란 내가 갖추는 것이지만 그 평가는 타인이 내린다. 타인이 느끼는 나의 인격, 행동, 언어 수준으로 나의 품위가 매겨진다. 우리가 품위 없는 부자를 졸부라 평가하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품위는 어디에서 나올까? 물질, 돈, 권력,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서 크리스천의 진정한 품위가 드러난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다니엘처럼, 선행과 구제로 품위를 드러낸 여제자 다비다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처럼 참된 인격과 믿음, 행위에서 크리스천의 품위가 나온다. 사랑과 겸손,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품위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칭찬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품위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 바울 사도의 간곡한 외침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

1등보다 빛나는 2등의 품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교수,
G.LAB 소장)

2017년 BMW텔러스마라톤대회에서 결승선을 180m 남겨두고 1위로 뛰고 있던 선수가 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를 바짝 붙어 달리고 있던 고교생 선수 아리아나 루터먼은 1위 선수를 가볍게 제치고 이 대회 우승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1위 주자를 앞서지 않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힘이 빠져 비틀거리는 선수를 또 다시 붙들며 격려했다.

“거의 다 왔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결승선이 눈앞에 있다.”

아리아나 루터먼은 결승선 테이프를 양보했다. 결승선에서 관중들이 열렬히 환호한 선수는 1위 선수가 아니라 2위를 차지한 아리아나 루터먼이었다.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박수와 발채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 아닐까?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마음을 다해 한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의 선물로 기억될 것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주일, 온누리신문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대한 글을 요청받고 잠시 고민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품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품위란 단어의 구체적 모습으로 나는 아리아나 루터먼이 떠올랐다. 기사를 통해 아리아나 루터먼이 12살 때부터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지 않은 그녀의 행동은 나이를 뛰어넘는 위엄을 느끼게 해준다.

생각해 보니, 작지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웃으며 인사하는 이웃,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굳이 줍지 않아도 되는데 허리를 굽혀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학생,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무거운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주는 아니지만 삶속에서 기본 좋은 기억을 선사하는 품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1위였던 찬들러 셀프가 넘어지자 2위로 달리던 아리아나 루터먼이 그녀를 도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의 공통점을 떠올려보니 이런 표현이 반복되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는 ‘고집을 부려 구테여’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지적으로 행동하고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품위 있는 사람의 행동은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준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아브라함과 롯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가족처럼 여기고 보살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을 불렀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조카 롯에게 어떤 말을 하겠는가? 너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안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다(창 13:9). 롯은 온 땅에 물이 넘쳐나 보이는 동쪽의 요단 지역을 택한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롯이 선택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움 준 것을 넘어 롯의 모든 재산을 인정해주고,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분명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 13:14-17).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표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때, 그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왔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사람들의 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

으셨다. 빌립의 계산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때 자신의 도시락을 바라보는 한 소년이 있었다.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가 손에 쥐어져 있다. 그것을 내놓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할 수도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다. 제자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고, 예수님은 축사하신 이후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셨다(요 6:11). 한 소년의 내어드림이 5천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사의 통로가 되었다.

이 외에도 성경 구석구석에는 품위 있는 행동을 한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그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순간을 선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

그렇다면 일상에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로 ‘정체성’을 꼽았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다짐이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나는 영과 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에 따른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골든 서클(Golden Circle)> 저자 사이몬 사이넥이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왜 해야 하지?’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행동을 묵표로 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가져 받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대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품위 있는 모습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는데 그 구체적 방법을 모른다면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 6:31).

필자는 ‘감사학교’라는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 나가서 타인의 감사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시장(市場)이라는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보라고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시장에서 쓰레기 줍기, 봉어빵 사서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하기, 무거운 짐 들어드리기, 웃으며 상인과 인사하기 등 시장에서 30분 동안 이러한 활동을 해보면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볼 때가 있다. 굳이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칭찬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일상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일상의 좁은 틀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표현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성품으로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때 우리의 작은 행함이 천국의 열매로 맺히길 것이다.

미리 만나보는 마리아행전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와 함께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마리아행전 6월 12~1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를 뛰어 넘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다음세대를 가슴에 품은 마리아들의 기도소리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마리아행전의 은혜를 100%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리아행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는 “깨어있는 여성들이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리아행전의 은혜를 100%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호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는 중보기도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저녁 마리아행전에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도록 초청합니다.”

이번 마리아행전 주제를 ‘거룩한 목마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 명예, 재산 등 세상 것들에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마름은 참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가 마리아행전이 되길 바라며 올해 주제를 ‘거룩한 목마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마리아행전을 100%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목마름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노래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리아행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에서 벧엘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성령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산, 마리아행전으로 올라오는 여인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대 마리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빈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은혜의 자리, 마리아행전으로 이 시대의 목마른 마리아들을 초대합니다.”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은 어떤 자리이고,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올해 동일한 질문을 이재훈 담임목사님께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마리아행전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십야예배 등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큰 절기들이 있는데 마리아행전 역시 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세대의 실체를 바라보며, 어미의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마리아행전은 온누리 여성들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리아행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행전은 사역을 하면서도 슬그머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흠어졌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며,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가 새롭게 회복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기대가 됩니다.

요즘 주일설교를 통해 선지자들의 기도들을 마주하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큐티를 통해 타락한 남유다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눈물로 외치며 고통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절절히 다가옵니다. 마리아행전을 앞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

게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성경 속의 수많은 중보자들처럼 이 시대의 여성들이 민족의 죄와 고통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리아행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행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의 자리까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눅 23:28)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참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기도가 드러지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행전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매년 마리아행전에서는 기도 후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몸으로 시간을 들여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여성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마리아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일터의 현장,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여성들은 믿음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녁 마리아행전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를 품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뜨겁게 기도

화성M센터, ‘화성M센터 제2센터’ 오픈

다문화평생교육원, 한국어교실, 문화교실 운영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발안만세시장에 문을 연 화성M센터가 창립 2년 만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화성M센터 제2센터를 오픈한 것이다. 날로 늘어가는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긴 한 성도가 봉헌한 헌금이 화성M센터 제2센터 오픈의 마중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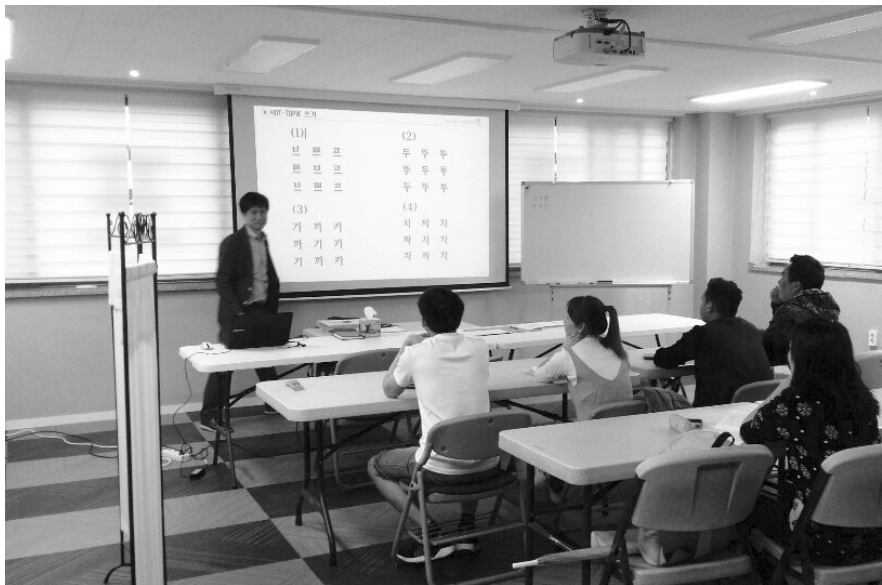
지금 화성M센터에서는

경기도 화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경기도 안산에 비해 이주민이 적다. 그러나 중국계 이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안산과 달리 화성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화성에는 이주민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온누리교회와 안산M센터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리서치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길거리 전도부터 시작했다. 이주민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왔다. 화성M센터 봉사자들은 교회의 여러 공동체의 도움으로 2년 동안 이주민들을 화성M센터로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이주민들 사이에서 화성M센터에 대한 기분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2017년 여름부터는 네팔인 목회자를 초청해서 네팔어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다.

화성M센터 오픈 1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매주 새로운 이주민들이 찾아왔다. 한국어교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화성M센터에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토픽반1, 2를 만들어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성심성의껏 가르쳤다. 이주민들이 가장

화성M센터가 어제(6월 1일) ‘화성M센터 제2센터’ 오픈예배를 드렸다. 약 70여 명 수용 가능한 공간(198㎡)에서 예배드리고, 한국어교실, 방과 후 수업,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2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네팔어예배와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중에는 화성M센터 제2센터에서 화성 다문화평생교육원을 열어 이주민들이 섬을 얻고, 꿈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화성M센터 제2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실.

많이 왔을 때는 한방에 파티션을 세우고 한국어 수업 세 개를 동시에 운영했다.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이주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봉사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이주민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가 이주민 열방예배인데 매월 한 번씩 드리다가 올해 5

월부터는 매주 드리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도 드리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차세대 예배를 시작했다. 또한 화성M센터에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국가와 인종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담당)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자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주일에 봉사자 한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지금 화성M센터에서는 한국인봉사자예배, 외국인열방예배, 네팔어예배, 차세대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어교실은 주말에만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챙겨주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업무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원평강 형제(가명)는 화성M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다 최근 경기도 시흥으로 이직했다. 원평강 형제의 일터에서 화성M센터까지 버스로 2시간 반 걸리는데도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고 있다. 오고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지 않냐는 한 봉사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화성M센터 봉사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화성M센터에 오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화성M센터가 제2센터까지 개원하면서 더 큰 날개를 달았다. 이주민들을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섬길 수 있게 공간적인 여유도 생겼다. 7월 중으로 화성M센터 제2센터에 다문화평생교육원도 오픈할 예정이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을 오픈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식할 예정이다.

문의: 070-8671-8091

사역 칼럼



김정희 선교사
(다문화평생교육원 담당)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에는 이주민들이 많다.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문화부서를 두고 이주민들이 직장을 얻고, 비자를 연장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일 등을 돕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이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은 대외적으로는 이주민

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주민들을 예배공동체로 연결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고 노출하는 장소이다. 고향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적으로는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다. 다문화가정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문화 차이와 언어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길러주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이주민들의 자녀들을 돌봐줘야 한다.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은 안산시 한국어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위탁 운영했다. 초급반, 중급반, 한국어 자격시험 1급, 2급반 등으로 나눠 운영했는데 그 효과가 탁월

다문화평생교육원의 꿈

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안산시로부터 우수기관 시장상을 받았고, 감사료도 지원받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토요일마다 열리는 댄스, 탁구, 요리, 바이올린, 기타, 역사체험 등의 동아리활동 비용도 지원 받았다.

화성 다문화평생교육원도 이와 같은 성장을 꿈꾸고 있다. 화성 다문화평생교육원은 강의실 위주의 공간이다. 화성M센터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올해 7월에는 화성M센터 한국어교실이 다문화평생교육원으로 정식 등록될 예정이다. 화성시와 국가평생진흥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자격증 과정도 유지할 것이다. 관광통역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화성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너무 많다. 다문화 청소년 사업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 다문화평생교육원이 더 많은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봉사자와 전문 강사들이 필요하다. 특정 분야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이 준비된다면 해당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다. 지금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한국 교회의 책무다. 교회는 지역주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들이 바로 지역주민이다. 이주민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과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한다. 화성 다문화평생교육원은 이주민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돕는 꿈을 꾸고 있다.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최고의 상담사 예수님처럼...

서빙고 상담센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이하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오늘(2일) 오후 6시 30분 한동홀에서 드린다. 1999년 창립된 서빙고 상담센터는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중심에 김혜례 권사, 윤정순 권사, 김기행 팀장이 있다. 그들에게 서빙고 상담센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수님을 닮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쉬지 않는 서빙고 상담센터 상담사들.

서빙고 상담센터는 1999년 창립했다. 올해가 꼭 20주년 되는 해다. 서빙고 상담센터의 씨앗은 하용조 목사가 뿌렸다. 마음 아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하용조 목사의 마음이 상담센터로 열매 맺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일일이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멤버 김혜례 권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1998년 가을부터 서빙고 상담센터 오픈을 준비했어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묻고 배웠어요. 그렇게 발품을 팔면서 서빙고 상담센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정말 고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참 설레고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온 20년

12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서빙고 상담센터의 초석을 다져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1999년 3월 서빙고 상담센터 문을 열었는데 찾는 이가 많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던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많은 성도들이 상담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제 발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대신 상담센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 상담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깊

이 이해했다. 그래서 날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치유 받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상담실이나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서빙고 상담센터도 예외가 아니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 벨소리가 줄어들고 서빙고 상담센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졌다. 내담자가 많아질수록 상담사도 늘어갔다. 서빙고 상담센터는 봉사자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상담사가 어느새 40명이 되었다.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내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성은 물론이고, 역량을 갖춘 전문 상담사들이 필요했다. 지금도 서빙고 상담센터 상담사들은 역량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다. 개인적인 수련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부한다. 상담 관련 세미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서빙고 상담센터에서는 내담자들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더불어 온누리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도 연결 해주고 있다.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이 끝나면 이

혼자행복학교를 소개시켜준다. 심리적 외상으로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에게는 내적치유학교를 연결해준다. 신앙문제로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에게는 문제에 알맞은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

서빙고 상담센터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봉사 덕분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입소문이 교회 담장을 넘어섰다. 다른 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서빙고 상담센터를 찾고 있다.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담자 37.3%가 타 교회 성도이고, 타 종교인은 11.8%, 무교인은 2.3%다. 서빙고 상담센터가 전도의 장(場)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서빙고 상담센터를 내방한 이들의 간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시원(가명)씨는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했다.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던 제 이야기를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며, 그 어려운 회복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는 상담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평안(가명)씨는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깊이 체험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최사랑(가명)씨 부부는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결혼생활 10년 만에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결혼생활 10년 만에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안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서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

서빙고 상담센터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찾아가는 상담’이다. 윤정순 권사는 해외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사모님을 상담 해드렸어요. 그 사모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서 몹시 힘들어하셨어요. 저희가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아픈 마음을 만져드렸더니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해외 선교사님 가정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을 찾아가 상담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목표는 전화상담 활성화다. 상담센터에 오지 못하거나 상담사가 찾아가할 수 없는 내담자들을 돕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 전화상담이 보편화되긴 했어도 실제 전화상담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봉사자를 애대게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김기행 팀장이 서빙고 상담센터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서빙고 상담센터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상담사들은 최고의 상담사인 예수님을 본받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상담센터가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사람의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담자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상담실 이용안내

-상담실 위치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1층 한동홀 앞
양재 온누리교회: 1층 원형 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분야
심리상담(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심리검사, 법률상담, 인터넷 중독상담, 세무상담 등

-문의 및 사전예약
서빙고 02-793-2997~8
양재 02-570-7536~7
* 모든 상담 사전 예약 필수

전문가 기고 _ 크리스천과 저축

영원한 하늘나라 계좌에 저축하라!

성경은 저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크리스천이 저축을 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일까? 아니면 비성경적일까?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시며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셨을까? 아니면 저축하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얻은 소득으

로 저축을 했을까? 만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축’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불현듯 이러한 엉뚱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선(先)저축 후(後)소비’, ‘강제저축’, ‘적금 풍차 돌리기’ 등 저축과 관련된 많은 재테크 방법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성경은 저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다.

성경에도 기록된 저축의 중요성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잠 21:20).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저축하지 않아도 ‘미래에 어떻게든 쓸 돈이 생기겠지’라는 식의 한탕주의에 빠져 현재 갖고 있는 돈을 낭비해버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필요자금들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에게서도 우리는 저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로서 앞으로 닥칠 기근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할 계획을 세웠다. 7년의 풍년 동안 수확의 많은 부분을 저축해 두었다가 7년의 기근이 닥쳤을 때 비축해놓았던 곡식으로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잠언 6장 6-8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언급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가을의 추수할 날을 기대하며 일할 수 있을 때(봄과 여름)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비유와 함께 많이 알려진 ‘열 므나’ 비유가 나온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맡긴 한 므나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맡겨놓은 한 므나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에게 주인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누 19:23)며 꾸짖는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은행(성경 전체를 통틀어 ‘은행’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옴)이라는 금융기관을 언급하신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장사하라고 맡긴 한 므나를 장사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저축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에 대해 최소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축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저축을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필자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다. 아들은 엄마아빠가 준 용돈으로 십일조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나름 열심히 저축한다. 명절 때 친척들에게서 받은 용돈 등과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모여 있다. 그런데 아들의 저축 목적은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물론 그것이 마트에만 가면 즉흥적으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보다는 훨씬 계획적인 소비이기는 하다. 이러한 저축의 목적은 성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 많은 해외여행, 지금 타고 있는 것보다 비싼 자동차 구입, 더 좋은 명품가방을 갖고자 하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크루지 같이 구두쇠여서 돈쓰는 게 마냥 아까워서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축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사망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과다한 보험료를 매월 지불하기도 한다. 물론 연

금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입금액과 보험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예시들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어쨌든 목표로 하는 종갓돈을 만드는 거니까 나쁠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의 목적들은 돈을 쌓음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있다. 계속 돈을 쌓기만 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 않는다면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쌓아놓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저축은 내 계좌에 돈을 쌓고, 기부와 나눔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정답은 없다. 다만 저축은 이 땅에 있는 내 계좌에 돈을 모으는 것이고, 기부와 나눔은 영원한 하늘나라 계좌에 쌓는 것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계좌에 쌓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쓰고, 일정 비율을 정해서 저축하는 것이 지혜롭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축중독증에 걸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혀 드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모으고 또 모으기만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20-21).

저축은 우선순위로 드리고 난 다음 하던 되는데 과연 소득의 몇 %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씀씀이가 커지고 저축이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강제저축’이 필요하다. 필자가 수년 동안 재정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돈은 있으면 쓰게 되고, 카드는 있으면 급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다. 따라서 과소비와 신용카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강제로라도 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이때 적금을 포함한 저축 금액은 미혼은 소득의 60~70%, 기혼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30~40% 이상은 강제저축할 것을 권한다.

또한 적금의 만기는 가급적 1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5년 동안 매월 150만원씩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9,300만 원 정도의 종갓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5년 만기 적금이 1년 만기 적금보다 이자를 더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적금 이자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1년 만기로 다섯 번의 적금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5년만 열심히 부으면 목표로 하는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적금을 1년만 부으면 돼’ 중에서 1년 만기가 동기부여가 더 높기 때문이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득이 늘어도 생활비를 균일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에는 연소득이 30파운드였는데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한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다음 해에 웨슬리 목사의 소득이 두 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28파운드로 생활하고 32파운드를 나눠주었다. 그 다음 해에는 소득이 90파운드로 늘어났는데 여전히 웨슬리 목사는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62파운드를 나눠주었다. 어느 해에는 수입이 1,400파운드가 되었는데 생활비 30파운드만 남기고 모두 나눠주었다. 그는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기를 원했다. 그는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자선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1791년 그가 죽을 때 평생 번 돈 대부분을 나눠준 이후여서 호주머니와 장롱 서랍 안에 동전 몇 개만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예화를 통해 진정한 저축과 나눔의 의미를 상기하게 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썩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19-21).



이재훈 담임목사가 어르신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6차 장로아카데미 종강

35명 수료, 3명 개근, 전원 성경통독

6차 장로아카데미가 종강했다. 지난달 2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회홀에서 6차 장로아카데미 수료예배를 드렸다. 6차 장로아카데미는 지난 2월 26일 개강했다. 장로 35명이 수료했다. 3명 개근상, 전원 성경일독 통독상을 받았다.

장로아카데미 수료예배는 유재홍 장로 찬양, 홍성호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수료증 및 개근상 수여, 이정근 장로 특선, 선물 교환 및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우리의 약함

을 통해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고, 홍성호 장로(신행위원장)는 “장로아카데미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1차~6차까지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한 모든 장로들을 대상으로 ‘흠커밍’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다”

2019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48명 세례 받아

지난달 29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아주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다. 지난달 20일(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도전집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48명이 세례를 받은 것. 병상에서 세례 받은 부모님도 세 분이나 계셨다.

행복드림콘서트 세례식은 영상상영 및 특선, 간증, 말씀, 세례식, 축복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곽수일 어르신은 “‘예수님 믿어도 손해 볼 건 없다’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남주인 집사(서초C공동체)의 어머니 김태균 어르신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1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남정진 장로, KCMS 대표 취임



남정진 장로

남정진 장로(일산공동체)가 한국위기관리재단(KCMS)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달 27일 남 장로의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 취임 감사예배를 남대문교회 알렌기념관에서 드렸다. 남정진 장로는 취임사에서 “선교단체와 선교사, 교회에 꼭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KCMS)은 2011년 설립된 NGO 선교단체다. 선교지에서 자연재해와 테러 등의 위기로부터 예방과 위기조치, 회복 등 전반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선교단체이다.

후원: 국민은행 993191-01-182880, 문의: 02-855-2982

123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6월 8일부터 30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3기가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하가훈 123기는 6월 8일(토)부터 30일(주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1박 2일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하가훈 123기에서는 1주차 ‘가정제도의 원리 피플퍼즐’, 2주차 ‘가계도, 부부치유’, 3주차 ‘부부의 성, 부부대화’ 4주차 ‘자녀교육, 아버지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가 이

어진다. 참가신청은 6월 7일까지 아이스쿨(iSchool)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삼십만 원.

문의: 010-4427-5025

010-9022-5228

바로 잡습니다

지난 주 신문 세례자 명단에 문영걸 형제의 공동체가 요셉공동체가기에 바로잡습니다.

2019 한국 글로벌 선교리더십 포럼

온누리교회와 GMLF가 공동주최하는 ‘2019 한국 글로벌 선교리더십 포럼(Korea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 ‘선교사, 정신건강, 그리고 교회 및 선교단체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책무’를 주제로 6월 10일부터 5일 동안 강원도 속초 컨벤션호텔에서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 조나단 봉크 박사(GMLF) 등 국내외 선교단체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CGNTV, 유튜브 콘텐츠 ‘붓소행집’ 론칭

미국 청년의 거리전도 프로젝트

CGNTV가 신규 유튜브 콘텐츠 ‘붓소행집’을 지난달 31일 론칭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에 업로드 된다. 붓소행집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수청년 조셉 붓소의 이야기다. 조셉 붓소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버스킹

전도를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

조셉 붓소는 KNOCK 미니휴먼다큐 ‘이태원 준섭이’,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3’ 등에 출연해서 큰 관심을 받은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청년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양주M센터 봉사자 및 물품 모집

남양주M센터에서 한국어교사와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의사를 모집한다. 한국어교사는 매주 주일, 의료봉사는 월 1회 섬겨줄 봉사자가 필요하다. 봉사시간은 주일 오후 2시

부터 4시까지다. 장소는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대로 91 제일빌딩 3층 남양주M센터다. 중고 치과 유닛체어와 냉온풍기 등 물품도 기증받는다. 문의: 010-3937-3927

두란노바이블칼리지 6월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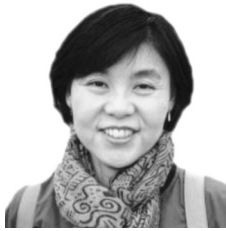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대기로 보는 2기 말씀관통 프로젝트’ (이하 말씀관통 프로젝트) 세미나가 신용산교회 1층 본당에서 열린다. <말씀관통 프로젝트>, <비전통독> 저자 조상연 목사가 강의한다. 회비 13만원. 문의: 02-2078-3275

‘갈라디아서 집중반’ 세미나는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도곡교육관 화평홀에서 열린다.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 권원경 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원. 문의: 02-2078-3456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792	연한준	Pole2	1135815	주희수	이수	1135834	정은주	여호수아	1135858	황주영	W
1135793	김진우	SNS	1135816	김금순	관악금천	1135835	강하빈	여호수아	1135859	안선애	서초A
1135794	황윤구	SNS	1135817	박평남	관악금천	1135836	김신영	여호수아	1135861	최준호	강서
1135795	민건희	SNS	1135818	김혜민	평택	1135837	최유나	여호수아	1135862	김이랑	부천 화평
1135796	이민지	SNS	1135819	차훈욱	평택	1135838	김현아	여호수아	1135863	이선남	부천 믿음
1135797	강한울	SNS	1135820	주정남	인천 소망	1135839	서가혜	여호수아	1135865	조연주	동작
1135798	김지현	SNS	1135821	이화중	양재	1135840	우나연	여호수아	1135866	박주화	Bridge33+
1135799	이호정	SNS	1135822	김국자	송파A	1135841	임길수	여호수아	1135867	김홍중	송파A
1135800	김예솔	SNS	1135823	정기영	송파A	1135842	안영화	한강	1135868	이창근	신용산
1135801	리 사	SNS	1135824	심호솔	Point5	1135843	박혜원	강서	1135870	정유선	S브릿지
1135802	정현주	강남C	1135825	박가영	인천 소망	1135849	박하철	마포	1135871	금동현	인천 소망
1135803	강성희	인천 소망	1135826	손익찬	강남B	1135850	신석진	서초B	1135872	최원녕	인천 소망
1135804	성윤창	마포	1135827	김현진	수원 HIS	1135851	박은영	인천 소망	1135873	곽다은	도곡
1135805	김경우	수원 HIS	1135828	윤종범	수원 HIS	1135852	김 선	동작	1135874	양유란	도곡
1135806	이명훈	남양주B	1135829	박수빈	수원 HIS	1135853	손종욱	서초B	1135875	하상아	강동 믿음
1135811	김종희	푸른누리	1135830	이진영	수원 HIS	1135854	박주선	하브	1135876	전양백	양천
1135812	이정욱	인천 소망	1135831	이승연	인천 소망	1135855	서유니	하브	1135877	반하니	동작
1135813	곽아름	인천 소망	1135832	한주현	여호수아	1135856	이지형	하브	1135878	강경숙	서초B
1135814	이교운	S브릿지	1135833	채재승	여호수아	1135857	안진경	S브릿지	1135879	조인숙	강남B

■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간증



/ 코타케 리츠코 집사(양재공동체)

부모님 맞춤 러브소나타 여행

딱 1년 전인 2018년 5월 친정아버지가 쓰러 지셔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병문안을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해 겨울, 다음 러브소나타가 내 고향 나고야와 가까운 시즈오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올해 1월 친정에 가서 뵈 아버지께는 참 많이 아쉽고 기력이 없어보였다. 부모님께 러브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버지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셨기에 참가가 불투명해 보였다. 포기하는 마음을 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TV에서 테너 배재철 씨의 다큐멘터리를 봤어. 이분이 러브소나타에 나오는 거 맞지? 라이브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는 시즈오카 러브소나타에 가기 위해 걷기 운동을 하셨다. 러브소나타 당일, 행사장에 도착했더니 양재공동체 장로님과 집사님, 목사님이 일부러 부모님 자리로 오셔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다. 드디어 러브소나타가 시작됐다. 이재훈 목사님의 메시지, 배재철 씨의 노래, 부모님과 동년배인 안토니오 코가 씨의 간증 등에 부모님이 크게 호응하셨다. 화관을 쓰고 박수를 치며 끝까지 신이 난 모

습이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전날 받은 은혜와 감동이 컸던지 기도해 준 양재공동체 집사님들께 인사하러 가자고 하셨다. 양재공동체 집사님들이 있는 C팀을 찾아갔는데 C팀 담당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부모님은 목사님의 기도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셨다. 놀라운 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며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강하면 외국까지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성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이나 신사에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받은 적이 없어. 강한 뭔가가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소망을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주셨다. 기도의 용사를 많이 붙여주시고, 부모님 맞춤 러브소나타 여행을 선물해 주셨다. 무엇보다 이번 러브소나타를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다. 일본을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양재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



/ 박신춘 성도(서초D공동체)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힘

‘마더와이즈’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워킹맘이었기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참가하게 되었다. 결혼 후 10년은 나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시댁과의 관계 어려움, 남편에 대한 원망, 직장 일과 독박 육아 등 시댁과 친정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잘하고 있는 척하면서 지내왔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었기에 영적 상태도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다. 매주 교회는 갔지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생활이 고착화돼 한계에 다다랐을 즈음 육아휴직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쉽다 더불어 삶을 돌아보기로 생각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휴직을 하고 바로 아이 교육에 집중했다. 일하느라 못 챙겼던 아이의 학업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고, 회사 다닐 때보다 바쁜 일정으로 아이와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의 영혼과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마더와이즈 교육이 시작되었다. 나는 마음이 너무 가난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임 하나하나가 감사했다. 말씀을 듣고 또 나눔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다. 남편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운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갑자기 가족들 앞에서 실천하기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용기를 냈다. 아이와 남편 모두 나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나의 작은 변화로 그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의 힘들이가 가족들까지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는 삶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양재 상담실 ‘도자기힐링’ 수업 후기



/ 김선희 성도(인천 라이프스프링교회)

‘다시 빛은 사랑’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실을 섬기는 선생님의 권유로 ‘도자기힐링’ 수업에 참가했다. Re ‘다시 빛은 사랑’을 주제로 전도마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다. 매시간 말씀과 도자기를 빛는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도자기힐링 수업은 매주 화요일 아침에 진행됐다. ‘빛-다시’, ‘물-대화하 소동’, ‘땅-중심’을 매개로 조명그릇, 부부 찻잔, 공동체 등 다섯 가지 작품을 만들었다. 도자기 점토를 선택해서 손으로 모양을 빚고, 그림에 유약을 칠하고, 거칠고 모난 부분을 물과 도구로 다듬어가며 깨진 것들을 다시 빚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사 64:8).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는 것입니다”(고후 4:7).

하나님은 도자기를 빚는 과정과 나눔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임을 생각나게 하셨다. 빛을 담

는 조명그릇을 빚을 때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부부찻잔을 빚으면서 서로에게 듣는 마음의 귀를 주시기를, 공동체 점시를 빚으며 교회에 뿌리가 심어지기를 소망했다. 또한 모래 섞인 점토에서 거친 마음의 상태를, 딸의 결혼을 앞둔 어머니의 눈물을, 도구를 잘 다루는 형제로부터 소통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을, 그릇에 물고기들을 채워가면서 커뮤니티와 멀어져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겔 47: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딤후 2:21).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화해로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까지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셨다.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업을 도우며 간식을 준비해주신 집사님과 기쁨의 나눔을 함께한 형제자매님께도 감사하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보아스, 나오미 선교사(인도)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살롬! 동역자님들께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는 새로운 사역지로 예정된 아프리카 감비아로 리서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웃나라 세네갈에도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어서 피곤할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세네갈은 서울 외곽지역 같은 느낌이었고, 감비아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바닷가가 나오는데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날씨가 좋고, 서늘하고, 생선도 많이 잡혀서 주변 유럽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감비아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념이 없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에서 1/3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문맹률이 75%나 됩니다. 최근 감비아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교육청을 찾아 “한국이 감비아의 교육이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리서치 기간 동안 감비아 국립대학 기독교

학과 교수인 선생님께서 “대학생인데도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쉬운 내용인데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말씀 끝에 ‘책 읽기 프로젝트’를 언급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차기사역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현지인들과 한인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희가 5년 동안 살았던 인도를 떠올렸습니다. 감비아는 무슬림이 전체 국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종교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인도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NGO ‘더멋진세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농장과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막 위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2기 사역지인 아프리카 감비아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로칼럼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제안

우승구 장로
(통일위원회)

지난 9일 미션디모데 ‘2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세미나에 참석했다. 평소 나는 교회공동체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더욱이 칼빈의 고향인 프랑스의 특별한 교회 이야기여서 기대가 매우 컸다.

‘미션디모데’는 바울의 영성을 본받으면서 캄비니즘, 위그노와 메노나이트 전통을 지켜오고 있으며, 교회의 성장이나 조직, 프로그램, 사역보다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단순성과 공동체적인 연합과 동역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참다운 교회공동체에 목말라있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고, 방향성을 잃어가는 교회들에게는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암울한 상태다. 심각한 버블사태와 저성장, 양극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남북분단과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적 상황이 겹쳐서 세계화의 확대, 4차 산업으로의 변화, 금융경제시대화의 피해를 심하게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념정쟁, 노사분쟁,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포퓰리즘과 물질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적 탐욕으로 인한 공동체정신의 실종, 다양한 차별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인의 감소와 지역 교회의 쇠퇴, 교단과 대형교회의 세속화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평소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답답함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아내와 함께 지난 3년 연속 황재명 목사님의 열정에 이끌려 강서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현장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를 돌아보며 직장생활 40년 결산과 인생의 2막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에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유럽의 5개국(독, 체, 오, 스,

프)에서 루터, 칼빈, 쾰빙글리 등 종교개혁의 주인공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나부터 신앙갱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제2차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부정적인 모습들, 사회의 분열상과 경제문제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상황의 배후에 어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온누리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을까? 사실 온누리교회만큼 선교사역과 사회적 사역, 가정사역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도 드물다. CGNTV, 글로벌 NGO 더멋진세상을 비롯해서 온누리M미션과 온누리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역 등 일반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비전교회들과 공동체, 1,000명에 이르는 선교사 파송, 다양한 사역팀들의 열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신된 리더 자원의 부족, 봉사에 대한 부담감, 안개성도의 급증과 순에 대한 열정 저하 등 공동체 성이 날로 약화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번 미션디모데 공동체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해 일깨워주는 듯 했다. 단순성과 순수성, 많은 숫자와 조직들, 사역보다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낮아짐, 내려놓음, 받아들임이 실천되는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순수한 발걸음!

아울러 안팎의 도전과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여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동체와 사역팀 운영의 변화 필요성, 1인가구와 고령자층의 급증, 저출산과 성도 수의 급감, 다문화 사회와 통일 준비, 경제·사회적 문제에 따른 교회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일종의 싱크 탱크 성격의 ‘바로 그 교회(Acts29) 비전센터(가칭)’를 제안한다. 교회 내에는 젊은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이 차세대 리더로서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선한 radical change를 위해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사이닝키즈 아이들과 부모님들

김진아 목사
(서빙고 차세대)

매주 토요일 아침 11시가 되면 나는 선교관 4층 누리홀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이닝키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있다. 사이닝키즈는 매주 토요

일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주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나아가는 꿈이자라는땅의 주중 프로그램이다.

나는 매주 사이닝키즈 부모님반에 들어가 부모님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자녀들과 암송할 말씀에 대해 설교하고, 자녀들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미션을 드리고,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긴장이 되고, 도전이 되고,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다음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만큼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를 위해 교사 뿐 아니라 가정의 동역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사이닝키즈 부모님들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자녀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시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사이닝키즈 부모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모습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사이닝키즈 부모님들이 대단한 이유는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갈망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배울 때는 좋지만 막상 자녀에게는 화부터 내고 초심을 잃게 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모님들의 고백이 너무 이상적이지도 않고, 가식적이지도 않은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다.

올해 사이닝키즈 부모반은 ‘사람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암송했다. 올해에는 기존의 격언과 교훈 중심의 통본문 암송에서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춰 성경 인물과 스토리 중심으로 전환하였는데 가정에서도 성경이야기를 토대로 자녀와 대화하고, 미션을 실천하고, 감사노트를 쓰며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는 자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전하고 있다.

사이닝키즈 부모님반의 목적은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것이다.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존엄성 등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해보며 성경을 매개로 자녀와 대화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가정마다 말씀으로 대화하는 문화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사이닝키즈가 국내 아웃리치를 떠나려 한다. 미자립 교회에서 말씀 암송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도전을 줄 것이다.

사이닝키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고, 그들이 있는 곳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 사이닝키즈 부모님반은 내가 성장하고, 도전을 받는 곳이다. 사이닝키즈 부모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가정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권사칼럼

강경숙 권사
(관악공동체)

지난해 행복드림콘서트 후속 프로그램에서 95세 친정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던 나는 결혼하고 스스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한 집사님을 통해 나를 온누리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난 이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로 인해 늘 바쁨

다.

오래전 큰언니를 맞춤전도집회 ‘해바라기’에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큰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조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연로하신 친정어머니가 안타까운 나는 일상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영적원리를 설명하면서 심령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10여 년쯤 전에 친정에 갔다가 서울로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터미널의 자에 앉아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다. 그러나 영혼의 울림이 없는 의례적인 기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는 육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고 고군분투하는 셋째 딸의 모습을 가깝게 여기시고 그

것 하나 못해주랴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따라하셨나보다.

5년 후에 어머니가 며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나는 다시 영접기도를 인도해 드렸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 들이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마침내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기회가 찾아왔다. 작년 열린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안내봉사를 하면서 후속 프로그램인 기차여행 홍보지를 보게 된 것이다. 기차여행의 장소가 나의 고향이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강원도 영월 동강 인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당 간사님을 찾아가 의논하고 실행했다. 어머니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쁘고 정갈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신 어머니는 인생

의 마지막 할 일을 마치신 듯 행복한 모습이었다.

나는 전도학교와 전도콜센터를 섬기면서 가족 구원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난다. 그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빛진 자의 마음이라.

어머니께서는 딸의 권고대로 세례를 받으신 그때의 결단을 일생의 복으로 여기시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다. 이 글을 쓰면서 새삼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혼수상태에 있을 때, 처음 교회에 나가 믿음도 아주 연약할 때 의식이 희미한 아버지의 귓전에 대고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세요”라고 외치던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으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받을 자를 찾고 계신다.

구하고 또 구하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박국의 기도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다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바벨론입니다.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시며 악에 대하여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적절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고작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행동합니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계시며, 악인들까지도 공의롭게 다루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악인으로 인한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반전될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1장에서는 항의했지만 3장에서는 찬양합니다. 1장에서는 두려움이었지만 3장에서는 믿음이 됩니다. 1장에서는 염려했지만 3장에서는 경배로 바뀝니다. ‘위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하박국의 변화를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1장에서 그는 염려자(Worrier)로 시작해서 2장에서 그는 관찰자(Watcher)가 되었다가 3장에서는 예배자(Worshiper)가 되었다.”

하박국의 고백은 역사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

심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 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17~19절).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역사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적절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육신적인 출생으로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박국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모든 죄에 임하는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개역개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비결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의 영인 성령께서 하박국 안에 존재했기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횡행합니다. 악인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박국 같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로서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인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 조심하라. 네 안에 악이 있다면 너도 심판에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모든 죄와 악에 임하기에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한 자비하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살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잔인한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해 달라는 하박국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인하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열매와 양과 소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발걸음이 아니라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듯 힘찬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서면 하박국의 기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농어촌미자립교회에서 온 편지



김성기 목사
(배점교회)

살롬, 배점교회에서 시무하는 김성기 목사입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위원회 재능기부팀으로부터 저희 교회와 사택 지붕 수리공사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배점교회에서 교환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배점교회는 1년 예산 1천 7백만 원, 교인 수 15~1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52년 된 농어촌미자립교회입니다. 2014년 임항숙 사모가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안동성소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나 재출혈이 생겨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좋지 않은 교회 형편까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몸이 회복되

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언어상실과 중풍이 찾아왔고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예수님이 좋은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네 손을 내밀라(막 3:5)’는 말씀으로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가게 되었고, 2014년 CTS 방송에도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교회 사역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50년이 넘는 교회와 사택에 비가 새는 것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아내와 함께 양동이와 대야 등을 준비해 비 새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교회와 사택에 비가 새서 썩은 낱새가 나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비만 오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비설거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고, 노회 총회에서도 도울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마철, 어느 때와 같이 교회와 사택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원통하여 하나님께 “주여! 비가 새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며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환상 중에 흰옷 입은 분이 다가와 “내가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여러 단체들에 도움을 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70평을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도울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던 중에 온누리교회 재능기부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단이 아니고 이미 신청한 교회가 너무 많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팀장님께도 여러 번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교회와 사택 지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점교회 교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재능기부팀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협력해서 안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능기부팀 덕분에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더 이상 교회에 비가 새지 않습니다.

배점교회에 재능기부팀이 방문해서 그간 안

부를 물었습니다. 2년 전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갚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재능기부팀의 사역은 가장 보람되고, 정말 복된 사역이었습니다. 지붕공사를 마친 배점교회는 이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농어촌미자립교회에도 재능기부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온누리교회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온누리교회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2년 전 지붕공사를 했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교회를 둘러보면서 2년 전 사역했던 재능기부팀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배점교회 교인들은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온누리신문

2019년 6월 2일(주일) | 제1248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1월 23일~29일

문의: 010-4902-1022

네팔 포카라 재능기부 아웃리치팀원

모집

일시: 8월 13일~19일(+1)

장소: 네팔 포카라

비용: 항공비 별도, 개인회비 30만원

분야: 이마음, 한국음식, 탁구, 악기(기타),

한국어, MK교육, 진로상담, 교사강습 등

문의: 이생명 선교사(010-2902-2763)

두란노서원 직원

모집: 서빙고 저작권팀, 양재 서점 매장

직원, 서빙고 광고 영업 직원

*** 공통사항**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이닝글로리 모집

일정: 7월 7일~10일

장소: 파주솔수양관

신청: 아이스쿨 및 예배후 안내데스크

회비: 280,000원

문의: 신정금간사 02-3215-374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향: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크리스천 뮤지션들과 함께 위로와 감동을 선물합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10시 50분 첫 방송



MC 가수 김영우



1회 6월 7일 방송 출연 가수 김태우

2회 6월 14일 방송 출연 가수 이진아